

현미경적 혈뇨를 동반한 무증상의 성인 여자에게서 다검출 전산화단층촬영술로 발견된 Nutcracker 증후군 1예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진단방사선과학교실*

박태운 · 박일운 · 한서구 · 김미성* · 송순영* · 윤수영 · 조현경

서 론 : Nutcracker 증후군이란 좌측 신정맥이 대동맥과 상장간막 동맥 사이에서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으로 좌측 신정맥 고혈압, 요관 주위와 신우 주위의 정맥류, 난소정맥 증후군, 요통 및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드문 질환이다.

저자들은 현미경적 혈뇨를 동반한 무증상의 성인여성에서 3차원 혈관조영술과 재구성 기법을 이용한 다검출 전산화단층촬영술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m, MDCT)로 신정맥 혈관조영술과 도플러 초음파검사 시행 전에 Nutcracker 증후군 진단을 경험하였기에 1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32세 여자 환자가 개인의원에서 우연히 발견된 현미경적 혈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문진상 잔뇨감이나 빈뇨, 배뇨곤란 등의 증상이 전혀 없었으며, 복통이나 요통도 없었다. 내원 당시 혈압 100/70 mmHg, 맥박 75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은 36.7°C이었다. 환자의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으며 늑골 척추각과 복부의 압통도 관찰 되지 않았다. 말초혈액 검사상 백혈구 6,800/mm³, 혈색소 11.8 g/dL, 혈소판 233,000/mm³이었고, BUN 11.5 mg/dL, creatinine 1.0 mg/dL, 칼슘 9.5 mg/dL, IgA 215 mg/dL였으며, 요검사에서 잠혈반응 3+, RBC 30-49/HPF, 단백뇨 음성이었고 요배양과 요세포병리학검사에서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다. 경정맥 신우 조영술상 요로 폐색이나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았고 방광경검사에서 방광점막의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요관 개구부에서도 폐색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검출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신손상의 증거는 없었으며, 좌측 신정맥이 대동맥과 상장간막 동맥 분지에서 압박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압박 부위의 직경은 약 1 mm 정도로 신정맥문의 직경 7 mm에 비하여 85% 가량 좁아져 있었고 좌측 신장은 우측신장 10 cm에 비해 13 cm으로 커져 있었으며 좌측 요추주위 정맥들의 확장이 관찰되었다. 3차원 CT 혈관조영상과 재구성 영상에서 상장간막동맥의 기시부 각도는 144도로 정상인에 비해 작아져 있었다. 도플러 초음파를 통하여 신정맥 직경과 혈류 속도를 측정하였을 때 혈류 속도는 신정맥문 보다 압박 부위에서 약 10배로 증가되어 있었다. 확진을 위해 신정맥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고, 좌측 신정맥과 하대정맥의 압력 차이가 3 mmHg로 측정되어 Nutcracker 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본 여환은 현미경적 혈뇨를 제외하고 증상이 없었기에 보존적 치료만으로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

결 론 : Nutcracker 증후군은 혈뇨의 드문 원인 질환의 하나로 신정맥 혈관조영술에 의해 하대정맥과 신정맥의 압력차를 구하여 확진을 하게 되며 저자들은 비침습적인 삼차원적 혈관 조영술과 재구성 기법을 이용한 다검출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하여 현미경적 혈뇨 외 무증상의 성인 여자에게서 Nutcracker 증후군을 진단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